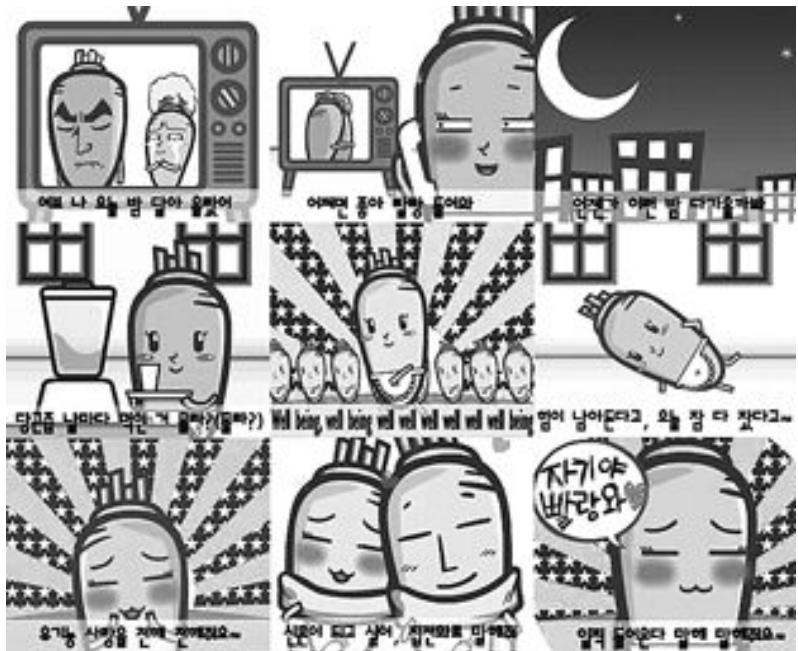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테테 텔미' 중독...이번엔 '성인용 버전'

"웰빙 웰빙 웨웨웨 웰빙~♪" 인기 노래, 동영상, 광고 등은 인터넷에서 순식 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류작이 만들 어지며 화제가 된다.

'유기농 담당 텔미' 동영상이 대표적인 동영상이다. 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최근 몇 달 사이 입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중독송, 원더걸스의 타이틀곡 '텔미(Tell me)'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21일 올라온 뒤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폭발하고 있다.

1분50초짜리 동영상에 삽입된 리듬은 '텔미'지만 가사는 완전히 다르다. '텔미'가 어린이부터 이른들까지 따라 부르는 노래라면 이 동영상은 성인용 버전이다.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라는 원래 가사는 "여보나 오늘 밤 달아올랐어 / 어쩌면 좋아 / 빨랑 들어와 꿈만 같아서"로 바꿨고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라는 부분은 '언젠가 이런 밤 다가올까봐 당근즈 날마다 먹인 거 몰라'로 바꿨는데 참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신혼이 되고 싶어 일찍 들어온다고 전화해줘요'로 끝맺는 동영상은 20대 이상 네이트에게 '원본을 이용해 또 다른 이미지나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패러디의 특성을 살린 기발한 동영상',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 아니냐'는 다양한 반응을 얻으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심첨가는 헐 줄 아시오?"라고 베름없이 묻는 반면에 '적벽가는 할 수 있으십니까?'라고 공손하게 묻는다는 옛 말을 해 주면서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려주는 윤진철 명창.

지난 11월 17일, 그를 만난 곳은 무등산 중심사 취벽루였다. 님의 "광대, 소리를 보다"라는 음반을 만난 것도 그 날이었다.

그는 국악 대사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 최고의 TV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얼씨구 학당'에서 좋은 진행으로 잘 알려진 명창이다.



개지는 현상이 생기는 악기다. 그러나 국악과의 연주에서는 박자감각을, 넘실거리는 경우에는 숨죽여 주어야 하고 빠른 박자인 자진모리의 경우에는 박자를 살여 있어서 흥을 북돋울 수 있는 연주를 해야 하는 편인데, 연주 습관이 서양음악과 달라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의 연주에서도 깊은 부분이 있는 재즈의 경우 유연한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리스(피아노 없이 하는 연주)의 재즈를 1950년대 마일즈 데이비스가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진도 들노래에서의 키보드는 노력한 흔적이 느껴지며 지역

국악, 기타와 피아노를 만나다

음반에는 수궁과 적벽가 심첨가 춘향가 한 대목 등이 들어 있고, 춘향가 중 쑹대머리와 최근 세상을 떠난 박병천님을 생각나게 하는 진도 둘노래는 특히 인상이 깊다. 각각 기타와 피아노의 합주가 들어 있어서 독특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는 더욱 많아져야 하겠지만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음의 높낮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서구 음악은 연주를 박자와 비트 위에 정확히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엉박자를 사용한다.

그런 반면 한국의 전통음악은 박자와 비트 위에 음을 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를 넘나드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음악이라 할 것이다. 서양음악은 선, 한국음악은 면이라 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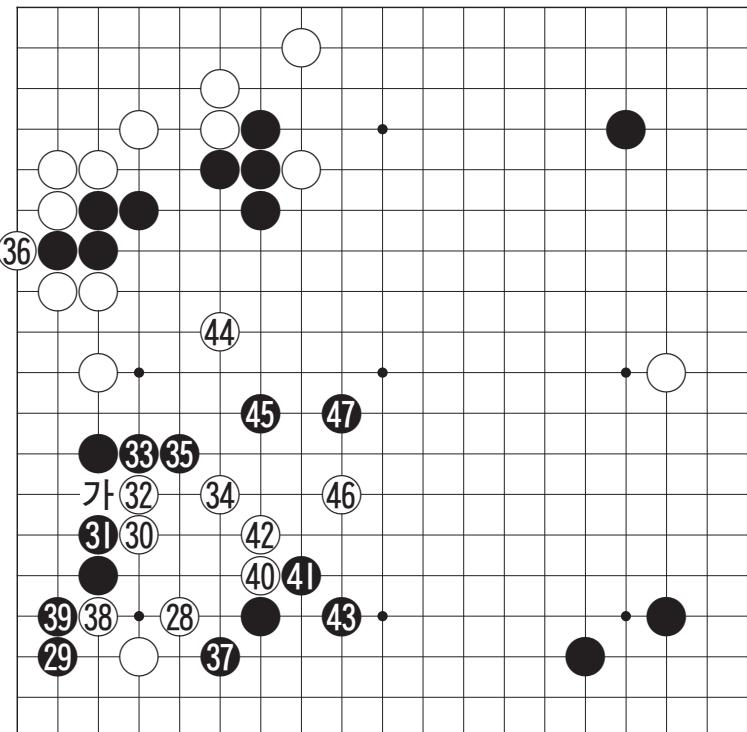
합주를 할 때 피아노의 경우 타악기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비트 위에 세울 경우 박자감각을 더욱 북돋울 수 있고 비트를 벗어날 경우 박자가 쪼

의 음악으로 30여년 내공의 장인 박문옥님의 기타와 더불어 심금을 울리는 구성진 소리의 쑹대머리는 애호가들의 들어 볼만한 연주 목록에 오르지 않을까 싶다.

국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대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의 느낌으로 숨죽여 지켜보는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윤진철 명창은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들의 추임새로 참여를 유도하며 서로가 호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한다.

그러면 힘도 더욱 나고 소리도 더욱 좋은 소리가 유도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아닐까. 주임새처럼 호응하고 박수도 보내고 등을 토닥여 주면서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다소 외롭고 고단하더라도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저절로 가세요.' 우리들의 추임새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을 것만 같다.

〈음악 칼럼니스트〉



제3회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소심한 연결 3보(28~47)

白 문병권 6단 黑 박문홍 7단

〈참고도1〉

〈참고도2〉

백 28로 나갔을 때 흑 29로 미끄러진 것은 놀랄 수 없는 요소다. 백의 근거를 빼앗으므로 해서 백을 공격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백 30은 일견 당연해 보이거나 기분에 치우친 수로 보인다. 이 수로는 단순히 '참고도1'의 백 1로 뛰고 3으로

자세를 잡는 것이 두터웠다. 박문홍 7단이 이렇게 둔 것은 '가'로 나와 끊는 뒷맛을 중시했으나 상하의 백돌이 약해서 결행이 쉽지 않다.

전국대회 우승 등 수많은 입상경험이 있는 박문홍 7단도 제자적인 문병권 6단과 대적을 하게 되니 부담이 많은 듯 주춤주춤 물러서고 있다. 백 36도 소심한 수였다. 이 수로도 하변의 요충지인 '참고도2'의 백 1로 짚고 3으로 두텁게 놀려 힘을 비축해야 했다. 흑 47까지 백이 수세에 물린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루이·김해민 기성전 패권 다투

루이 나이웨이 9단과 김해민 5단이 제2회 부안 여류기성전 타이틀을 다투했다.

21일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특별극장에서 열린 이 대회 4강전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과 김해민 5단이 각각 박자는 8단과 조혜연 7단을 불계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무대에 오른 루이 나이웨이는 대회 2연패에 나서고, 김해민 5단은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두 기사간 역대 상대전적에서는 루이 9단이 2승으로 앞서 있다. 루이 9단은 2004년과 2006년 여류국수전 본선에서 김 5단을 꺾었다. 결승전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

90.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6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남북은 이 공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측 인원과 차량들의 공단 출입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단은 어디일까요.

①개성공단 ②여천공단 ③하남공단 ④송암공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13일 壬申)

子 36년丙子 향후를 위해 좋은 설계가 필요하다. 48년戊子생 하늘이 노하니 백사에 도움이 없다. 60년庚子생 呂多吉小로 괴로움이 많다. 62년壬子생 하늘이 도우니 수입은 무단다. 84년甲子생 자녀들의 활동과 활기차다.

丑 37년丁丑생 진행사가 순조롭다. 49년己丑생 데리고 있던 협력자도 도망간다. 61년辛丑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가도의 안정이 뒤 따른다. 73년癸丑생 설계는 그러나 진행은 하지마라. 85년乙丑생 말초집심을 해야 한다.

寅 38년庚寅생 이면적으로 정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접점이 필요할 때다. 60년庚寅생 서둘지 말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62년壬寅생 생 더한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한다. 74년甲寅생 하늘이 협조하니 과목해석을 해야 한다.

卯 39년己卯생 큰 진전은 없고 먹고 노는 유용さ가 많은 형상이다. 51년壬卯생은 고생은 없으나 새로운 투자는 금하라. 63년癸卯생 의의의 재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새롭다. 65년丙卯생 이성간의 문제를 맡고 수나 처신을 잘해야 한다.

辰 40년庚辰생 변동은 금물이고 투자는 손재만 남는다. 52년壬辰생 미兜리를 잘하고 과육은 금하라. 64년甲辰생 정찬이 없어도 내실을 기하라. 76년丙辰생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巳 41년辛巳생 金氣運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보라. 53년癸巳생 하루 종일 소심하니 맨 노끼가 숨을 준다. 65년乙巳생 용이 빠져나되는 길목에 앉도록. 77년丁巳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유통위장까지 살펴보라.

午 42년壬午생 時機로인듯 하나 내자녀가 나타난다. 54년甲午생 남의 말 믿고 좋은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지마라. 66년丙午생 속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進行한다. 78년壬午생 꼬玷도 하지마라.

未 43년癸未生 여성은 아들을 살펴보고 남성은 여식을 살펴보라. 55년乙未생 긍진은 불하하니 서행하며 살펴가라. 67년丁未生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79년壬未生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정확하게 판단하라.

申 44년甲申생 주변을 정리하고 질대로 신사는 참여마라. 56년丙申생 아직은 활발하니 내일을 준비하라. 68년己申생 희비가雙偶하니 무리수는 두지 마라. 80년庚申생 크게 도운받는 일은 없지만 내용적 계획은 순조롭다.

酉 45년乙酉생 입을했던 과거는 지나고 안도의 기분이나 급진은 이루어졌다. 57년丁酉생 조심스런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궁금하다. 69년己酉생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1년辛酉생暗中이 생활하니 신중하니 처리하라.

戌 46년丙戌생 변동에 변동으로 情分이 생겨나질 않는다. 58년戊戌생 가족과 친구로 진로를 물려라. 60년庚戌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사가 발생할 징조는 있다. 82년壬戌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름이 더 할 것이다.

亥 47년癸亥생 경기장을 맡고 관광하는 계획만 세우라. 59년癸亥생 호랑이 코털을 건드는 격이다. 71년辛亥생 점차 죽소하며 실리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것이다. 83년癸亥생 오랜 친구가 반갑게 대하지 못하는 형상과 같다.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39>

오하요우 니혼고 <1039>

니하오 쟁구워 <16>

한자 이야기 <656>

All right, I'll go with you.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A : If I don't go to the supermarket to get my daily necessities, I will not have any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B : Is that the only thing you need at the supermarket?

A : Not only toothpaste, but also other things, too. For example : milk, juice, food, toilet paper, laundry detergent, and ... Anyway, I have a shopping list.

B : All right, I'll go with you.

A : 수퍼마켓에 가서 생필품을 사질 않는다면, 치약이 없어 이 도 담지 못하겠어요.

B : 그것만이 수퍼마켓에서 필요한가요?

A : 치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예를 들어, 우유, 쥬스, 먹을 것, 화장지, 세제 등등이요. 어쨌든... 여기 구입 품목표가 있거든요.

B :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go with ~ : ~와 동행하다

* toothpaste : 치약

* laundry detergent : 세탁 세제

どうぞお樂(らく)に。

자, 편안하게...

A : 朴さん, 足(あし)が痛(いた)くはありませんか。

B : 憶(な)れないので, 少(すこ)し痛(いた)いですね。

A : ジャ、我慢(がまん)しなくともいいですから, どうぞお樂(らく)に。

B : 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助(たす)かります。

A : 朴先生님! 밤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B :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아픕니다.

A : 그럼 참지 않아도 되니까, 자, 편안하게...

B : 이야,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慣(な)れる : 익숙해지다(오래 경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다)

我慢(がまん)する : 참다, 견디다

助(たす)かる : 살아나다, 구제되다, 편해지다

喂, 你好!